



탈수, 다뇨, 의식변화 까지 증상 다양해

혼수를 부르는 급성합병증

혈당이 극도로 높아져 발생하는 고혈당성 급성합병증은 의식저하에서 혼수상태로 진전돼 생명까지 앓아가는 무서운 합병증이다. 과거 인슐린이 개발되기 전에는 발병 시 사망률이 100%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었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로 사망위험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합병증이다.

‘혼수’에 ‘사망’까지 불러오는 치명적인 합병증

고혈당에 의해 생기는 급성합병증은 당뇨병성 케톤산혈증과 비케톤성 고삼투압성 혼수로 나뉘어진다. 케톤산혈증은 체내 인슐린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해 대신해서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부산물로 생성된 케톤체가

혈중에 많아지면서 나타난다. 주로 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잘 발병하며 일부 제 2형 당뇨병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증상으로 초기에는 소변량이 증가하고 다뇨, 갈증으로 인해 다음(多飲)을 호소하며 체중감량과 함께 심한 전신 쇠약감을 보인다. 케톤산혈증이 발병한

환자를 보면 피부와 입술, 혀에 물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있으며, 숨 쉴 때 아세톤 냄새가 나기도 한다. 주 증상으로 혈당측정 시 250mg/dl 이상의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를 보이며 의식이 흐려지면서 구토, 메스꺼움, 복통, 빠른 호흡이 나타나고 결국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케톤산증과 탈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의식에 변화가 온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케톤산증의 원인은 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등 신체 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감염으로 흔하게 생기며, 인슐린 투여를 급작스럽게 중지하거나 투여용량을 감량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 외에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알코올 남용, 약물 오남용, 외상, 급성 췌장염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당뇨병 유형에 따른 케톤산혈증이 발생하는 경우]

제 1형 당뇨병	제 2형 당뇨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인지 모르고 있다가 진단받는 경우 • 인슐린 치료를 중단한 경우 • 인슐린 펌프 치료 시 펌프가 고장난 경우 • 인슐린 치료 시 독감, 사고, 중병 등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 종기, 폐렴 또는 농양 등 감염이 생긴 경우 •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원, 기도원, 수용소 등에서 극심한 고행을 한 경우 • 혼수상태를 가져올 정도로 심한 음주를 한 경우

고령의 제 2형 당뇨병에서 자주 발생

비케톤성 고삼투압성 혼수는 유병기간이 길거나 나이가 많은 고령의 제 2형 당뇨병환자에게 나타나는 급성합병증이다. 고혈당과 함께 탈수증상이 동반되면서 의식이 저하 되는 과정은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매우 유사하나 서서히 진행 되고, 케톤의 증가와 산혈증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고삼투압성 혼수는 고혈당 상태에서 소변의 양이 증가하여 몸이 탈수된 경우나 수분을 적절하게 공급하지 않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주로 뇌졸중환자,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 신체적 장애나 노화에 의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수분섭취를 적절하게 할 수 없을 때 드물지 않게 유발한다. 비케톤성 고삼투압성 혼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혈당이 600mg/dl 이상 심한 고혈당 상태를 보이며 심한 갈증, 다뇨, 수일에 걸쳐 서서히 의식에 장애가 생긴다.

더 진행하면 탈수증상과 저혈압 및 대발작, 일시적인 반신불수 증세가 나타나며 심해지면 혼수상태에 빠진다. 고삼투압성 혼수를 뇌졸중으로 오진하는 경우도 있다.

무서운 것은 증상이 수주에 걸쳐 나빠지기 때문에 위중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령일수록 치료율이 떨어지고 폐렴이나 패혈증 등 질환이 동반되면 사망 위험이 높아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증상 의심되면 즉각적인 병원 치료받아야

급성합병증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환자를 빠른 시간 안에 응급실 혹은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하고, 탈수된 상태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병원에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

케톤산증이 자주 발생하거나 증상이 의심될 때는 케톤을 측정하는 시험지나 혈당측정기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고혈당성 혼수의 경우는 혈당이 300mg/dl 이상이고 탈수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급성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인슐린 주사를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맞고, 인슐린 펌프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또 몸이 아픈 날에는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거르지 말아야 하고 평소보다 자주 혈당을 측정 해 혈당수치를 파악해야 한다. 

글/ 김민경 기자